

보육시설에서의 “학예발표회”에 대한 질적 분석*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hildren’s Talent Show” at
Child Care Centers*

김은주(Eun-Ju Kim)¹⁾

서영희(Young-Hee Seo)²⁾

ABSTRACT

This study approaches the children’s talent show performed at child care centers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pedagogy in order to investigate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 Two child care centers where children’s talent show are opened annually were selected as a sampl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by collecting data from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s with the children, teacher, parents, and principles at the selected cen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children’s talent show played a role as a business tool for managing the child care center in terms of such functions as recruitment of new children and promotion of the institute, rather than simply being the result of demand from the children and parents. Consequently, the children and parents appear to be passive participants in the talent show by partially accepting the positive views thus generated without expressing disagreement with these views.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a general debate regarding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events at child care centers.

Key Words :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 학예발표회(children’s talent show),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²⁾ 동부산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Eun-Ju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 30, JanJun-dong, Gumg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eunjukim@pusan.ac.kr

I. 서 론

오늘날 유아교육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활동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실시되고 있는 행사의 유형에는 소방서나 우체국과 같은 기관을 견학하는 것에서부터 소풍이나 관찰·조사를 위한 야외학습, 인형극이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 운동회나 축제와 같은 모임, 기관의 생활을 공개하는 부모참여 수업,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전시회나 발표회 등으로 그 종류와 내용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과 이외에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행사가 평소 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을 유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유아들의 성장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 보기 때문이다(김수향·이용주·이은진, 2008; 김영옥·진명희·김혜경, 1995). 또한 교사와 함께 일상적인 일과와는 다른 행사를 계획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고, 친구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감, 협동심과 성취감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한입순, 1994).

따라서 유아교육에서 행사는 유아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고 진행되고 있는 교육주제와 관련된 심도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행사에 관련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한다(김은영, 2006; 조염미, 2004). 즉, 행사는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활동 형태로 운영되며, 교사와 유아가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통합적 교육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대체적 추세이다.

유아교육에서 행사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행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치원 행사의 현황을 밝힌 김마리(2008)와 홍성임(1994)의 연구가 있으나,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로서 행사의 현황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유치원 행사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로, 송재영(1998)의 논문이 있으나 유치원 행사에 대한 지도의식을 한국과 일본의 부모의 의식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행사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보육시설에서의 행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김마리(2008)의 연구에서 제한하였듯이, 유아교육에서 행사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 대한 또 다른 반응 중의 하나는, 학부모나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아모집 등의 홍보 방법으로 많은 행사를 강화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김수향·이용주·이은진, 2008; 이대균·송정원, 2005), 이것은 곧 행사의 의미가 유아를 교육하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유치원 행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연구한 김마리(2008)의 논문에서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리한 행사 연습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과 결과중심의 보여주기식 진행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사와 유아의 일과를 살펴본 서영희(2008)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보육시설의 교육 일정에 많은 피해를 주며 유아들의 흥미를 무시하고 과도한 연습과 일률적인 발표를 하게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조주연(2004)은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함에 있어 교사가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김혜원(2005)의 논문에서는 유아교육 하면 행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며, 유아교육에서 행사는 초등학교 행사보다 규모가 크고 교사의 손이 많이 가며, 그 목적은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행사가 유아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활동 형태로 운영되지 못하고 성인인 교사 중심으로 계획되고 상업적인 측면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 중심의 ‘보여주기식의 행사’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행사 중의 하나가 ‘학예발표회’¹⁾다(김종만, 1992). ‘학예발표회’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이다.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 중

1) 이는 보육시설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 년간 아이들이 원에서 배운 것들을 학부모를 초청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며, 원에서 하는 경우와 원 이외의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예전에는 ‘재롱잔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재롱발표회’, ‘학예회’, ‘학예발표회’ 등으로 기관마다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총칭하여 ‘학예발표회’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특별한 날」 책을 보면, 입학식, 생일, 소풍·견학, 가족참여일, 수료·졸업일에 대해 별도로 마련된 책 한 권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행사의 활동 시기 및 기간은 유치원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교육인적자원부, 2000), 그 어디에도 ‘학예발표회’에 관한 설명은 없다.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별도의 책 없이 새 교육과정에 맞춰 교사용 지도서로 배포된 「유치원 지도서 1 총론」에서 ‘특별한 날’을 거론하면서 기념일, 국경일, 명절 및 절기, 유치원의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입학일, 졸업일, 생일, 현장 학습, 소풍, 가족 참여일 등을 지역과 유치원의 특성에 따라 시기, 내용을 결정하여 운영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보육시설의 운영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과정에서 역시 학예발표회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여성가족부, 2007).

이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예발표회’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학예발표회’를 하는 기관이 많으며, 일반인들이 접하는 신문기사나 부모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이에 관한 신문기사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재롱잔치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의 ‘재롱잔치’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홍보하기 위한 ‘돈잔치’라고 비판한다. 재롱잔치 때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대개 의상 대여료(한벌당 1만원 안팎), 비디오 촬영료(2-3만원선)는 필수항목에 포함돼 학부모 평균 5만-6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중략)…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재롱잔치 무용론’도 등장했다(한겨레신문. 2008. 2. 14).

위의 기사를 본다면, 유아교육에서 ‘학예발표

회'는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부모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기관이 학예발표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걷지 않고,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형식이나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의상과 소품으로 간단한 발표회를 하는 등 소박하게 행사를 치르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관들이 학예발표회를 관례화하면서, '큰 장소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멋진 동작을 보여줘야' 일 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것에 대해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다음 해의 원아모집으로 이어지는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학예발표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으며, 행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획되고 실행되며 학부모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학예발표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학예발표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보육시설로 들어가 '학예발표회'가 유아의 일과 중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고 평가되고 있으며, 유아와 교사, 학부모, 원장에서 그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최근 들어 교육과정 연구에서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김영천, 1998; Walker, 1992), 계획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거부되고, 그리고 협상되는지를 분석하기에 용이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김영천, 2006). 또한 "학예발표회"를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비판적 교육학은 최근 교육과정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현 시대의 사회현상이나 교육현상을 이해하는 주요한 하나의 담론이 될 수 있고(Pinar et al, 1995), 그러한 현상을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맥락화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므로 교육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Carlson, 1992).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예발표회"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탐색해 봄으로써 보육시설에서 학예발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보육시설의 행사에 대한 바람직한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서의 학예발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어떠한가 그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 현장으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학예원'과 '발표원'의 두 곳에서 실시되었다. 두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두 기관 모두 연례행사로 학예발표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학예발표회의 실제와 의미를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예발표회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두 기관의 만 5세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관 및 인명의 명칭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반(이하 재롱반, 잔치반) 유아들과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원장 등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예원은 법인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로 중류층이 살고 있는 부산시 M구에 위치하고 있다. 교직원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편성은 영아반 4개반과 유아반 5개반으로 총 9개 학급으로 총 원아수는 124명이다. 하루운영 시간은 반일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이고, 종일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3시 30까지 운영된다. 만 5세반인 재롱반은 총 23명(남녀 비율이 13대 10명)인 유아들과 담임교사 1명,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들 대부분은 재원생들로서 어린이집 주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승합차를 이용하여 등·하원한다. 원장(이하 원장 1)은 15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학예원에서만 7년째 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재롱반 담임교사인 김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유치원에서 2년간 교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는 3년째 일하고 있다. 나이는 30살이며, 미혼이다. 재롱반 교사를 돕는 보조교사인 하교사는 26세로 2년제 아동복지과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야간에 아동학 학점은행제 교육을 받고 있다. 초임교사로서 현재 재롱반 보조교사로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학예원 전체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등·하원 차량지도를 주로 맡으며, 재롱반 교실에는 점심시간이나 귀가시간, 행사 준비 때마다 잠시 들어서 재롱반 교사를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인 부모 2명 중 한명(이하 부모 1)은 38세이며 현재 재롱반에 1명과 만 3세반에 1명의 자녀를 3년째 보내고 있다. 나머지 부모 1명(이

하 부모2)은 33세이며 재롱반에 1명의 자녀를 2년째 보내고 있다. 또한 재롱반에 손자를 보내고 있는 조모(이하 조모 1)는 61세로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서 3년째 손자의 어린이집 생활을 돌봐주고 있으며, 주로 도보로 손자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돕고 학예원에서 부모 참여를 요구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참여기관인 발표원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재래시장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위치로 주로 중류층이 살고 있는 부산시 Y구에 있다. 교직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급편성은 영아반 2개반과 유아반 3개반으로 총 5개 학급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원아수는 80명이다. 하루운영 시간은 반일제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고, 종일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원장(이하 원장2)은 20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발표원에서만 12년째 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 관찰학급인 잔치반은 총 22명의 유아(남녀 비율이 10대 12명)와 주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들 대부분은 어린이집 주변의 상가내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승합차를 이용하여 등·하원하였다. 담임교사인 이교사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유치원에서 4년간 교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는 5년째 일하고 있다. 나이는 37살이며, 두 아이를 둔 기혼교사이다. 보조교사인 민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초임교사로서 잔치반 보조교사의 역할과 함께 발표원 사무·행정업무 및 행사준비 등도 함께 돕고 있다. 연구참여자인 부모 2명 중 한명(이하 부모 3)은 31세이며 현재 잔치반에 1명의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징

학예원					발표원				
연구참여자	성별	나이	교직경력	학력	연구참여자	성별	나이	교직경력	학력
김교사	여	30	5년	4년제 대학졸	이교사	여	37	9년	4년제 대학졸
하교사	여	26	1년	3년제 전문대학졸	민교사	여	26	1년	3년제 전문대학졸
원장 1	여	44	15년	2년제 전문대학졸	원장2	여	48	20년	대학원졸
부모1	여	38	자녀2명 3년째 보냄	2년제 전문대학졸	부모3	여	31	자녀1명 2년째 보냄	4년제 대학졸
부모2	여	33	자녀1명 2년째 보냄	대학원졸	부모4	여	33	자녀2명 2년째 보냄	2년제 전문대학졸
조모1	여	61	손자1명 3년째 보냄	중졸	조모2	여	65	손자녀2명 2년째 보냄	초졸
재롱반 유아들	남(13)/ 여(10)	7	재원생19명 신입생 4명	.	잔치반 유아들	남(10)/ 여(12)	7	재원생12명 신입생10명	.

자녀를 2년째 보내고 있으며, 나머지 부모 1명(이하 부모4)은 33세로, 2명의 자녀를 잔치반과 만 4세반에 각 1명씩 2년째 보내고 있다. 잔치반 유아의 조모(이하 조모 2)는 65세로 딸이 자녀를 대신해서 2년째 손녀와 손자를 잔치반과 만2세반에 보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총 25주 동안 1주일에 1~2회씩 두 기관을 방문하여 참여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연구기관 두 곳이 모두 연례행사인 학예발표회를 2학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보았다.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로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연구는 행사 및 학예발표회에 관

한 연구물 및 두 기관의 안내 팸플릿, 홈페이지 자료, 교육과정 설명서, 가정통신문, 연간계획안, 주간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 교사 회의록 등 학예발표회와 관련된 각종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현장연구는 두 기관의 재롱반과 잔치반의 유아를 대상으로 참여관찰하고, 유아들과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아들과의 면담은 유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파악해 내려는 목적 하에 일과 진행 과정 중 특히 소모둠으로 흩어져서 활동을 할 때와 자유선택활동을 할 때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유아의 관점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유아들의 학예발표회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 생각, 어려움, 갈등 등에 관한 것으로 하였다. 원장과의 면담은 주로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오후 교사회의가 마친 후 원장실에서 이루어지거나 토요일에 이루어졌고, 교사와의 면담은 하루

일과 중 유아들의 2차 귀가가 이루어지는 오후 4시 이후에 잠시 이루어지거나 오후에 교실 청소를 하거나 수업준비를 할 때 또는 토요일 당직 근무일 때 진행되었다. 면담내용으로는 학예발표회의 계획, 진행, 평가, 의미 등에 대한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면담은 유아들의 등·하원시간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으로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예발표회에 자녀를 참여시키면서 학부모로서 느끼는 생각, 의미, 어려움, 앞으로의 개선점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원장과 교사, 부모가 따로 면담 시간을 가지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학예발표회에 대한 경험을 직접 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참여관찰은 Spradley(1988)가 제안한 참여관찰의 3단계인 서술적 관찰, 집중관찰, 선별적 관찰로 나누어 진행하면서 연구의 초점을 좁혀나갔다. 제1단계는 예비관찰 기간으로 유아들의 전체적인 일과의 흐름을 서술관찰(narrative observation)하였다. 교사와 사전에 상의하여 학예발표회와 관련된 활동이 시작되면 그 날부터 집중관찰(focused observation)을 하였다. 선별관찰(selective observation)은 그동안의 관찰내용을 검토하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관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관찰은 유아들의 이동동선을 따라다니며 실시하였으며, 교사와 유아간, 유아와 유아간의 대화나 유아들의 몸짓, 표정 등에 중점을 두었다. 관찰을 할 때마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연구자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하고 당일 밤이나 그 다음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전사해 두었다. 일주일 단위로 정리된 기록들을 가지고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매주 협의를 하면서 함께 자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료 분석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자료나 내용이 있으면

다음 기관 방문 시 이를 확인하고, 연구자 일지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연구자의 관찰과 기록 및 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전통적인 연구방법과는 달리 직선적인 선후 관계로 이루어지는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순환적인 과정을 밟으므로(조용환, 1999). 자료 수집과 분석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크게 공식적 자료와 사적 자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공식적 자료는 기관 안내 팸플릿, 홈페이지 자료, 교육과정 설명서, 가정통신문, 연간계획안, 주간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 교사 회의록 등 학예발표회와 관련된 각종 문서를 말한다. 사적 자료는 연구자가 참여관찰과 면담, 연구자 일지 작성을 통해 얻은 전사 자료(transcribing : 모든 수집한 내용을 깨끗하게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컴퓨터 파일에 입력하여 저장한 것), 아이들 활동사진과 작품사진, 교사가 제작한 학예발표회 교재 및 용품 등을 말한다.

자료분석은 먼저, 서술관찰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위 영역을 잡아 분석하고, 여기서 드러난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관찰, 심층면담 및 문서자료를 분석하여 영역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각 영역에 맞는 내용을 일정한 틀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분류분석의 단계에서 방만하게 구성된 틀을 더욱 좁혀 몇 개의 범주와 관련된 속성을 찾아 포괄적이면서 명료한 주제를 끌어내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참여관찰, 면담, 문서수집 등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해석상의

판단 오류를 줄이고자 삼각검증(triangula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에게 전사 자료 혹은 해석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받음으로써 자료의 분석과 의미 도출에 대한 왜곡을 피하고자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방법을 실시했다(Guba & Lincon, 1985). 셋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연구자 이외에 참여관찰을 도운 연구보조자 1인과 함께 코딩범주를 분석하는 동료 검토(peer examina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연구보조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교육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이다. 넷째,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유아교육 전공자 1인에게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검토 받는 외부 감사(audit) 방법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학예발표회의 계획, 진행, 그리고 평가

1)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하다

학예발표회는 기관에서 매해 마다 정기적으로 치루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면서 힘든 행사로 인식되고 있었다. 학예발표회와 같은 행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상의 필요에 의해 유아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이대균·송정원, 2005).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육적인 이유보다는 기관의 평가라는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매년 연례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발표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장 큰 연례행사라고 할 수 있지요. 결과에 따라서 기관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해의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다음해의 원아모집과 직결될 수도 있고, 특히 교육부분에서는 학부모들의 입소문이 엄청 빠르잖아요. 일단 무엇을 보여주는

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중략)... 표면적으로는 아이들과 일 년 동안 배운 것을 중심으로 무대에 올리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달라요. 일단은 아이들의 세련된 율동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영어뮤지컬, 영어동극, 퍼포먼스, 노래, 합창 등 단순한 수업발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2008. 10. 6. 원장1 면담).

이러한 학예발표회는 대부분 한두 달 전부터 교사회의를 걸쳐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는 유아들의 요구나 흥미보다는 교사 중심의 토의와 준비로 진행되어지고, 이것이 결정되면 유아들에게 행사 진행 내용, 각자의 역할과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나 수가 정해져요. 예를 들면, 어린반 아이들은 귀엽고 깜찍한 만화노래 중심으로 2개나 3개 정도 하고요, 큰 반 아이들은 대중가수들의 춤이나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편이에요. 작년에는 텔미나 율해는 노바디를 중심으로 했고 트롯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도 같이 따라서 부르고 즐거워하시거든요. 애들도 재미있어하고요(2008. 9. 8. 김교사 면담).

작품이 정해지면 전체적인 행사진행순서 정하고, 교사는 미리 작품 안무나 율동 등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연습하고... 아이들한테는 각자 작품할 것을 알려주고 조를 짜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대부분 성별로, 혼성으로 각각 맞추고, 7세인 경우는 한 아이가 적어도 3작품 이상의 작품에는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 (중략)... 작품과 의상 정하고, 업체와 장소 섭외하고... 우리는 거의 이벤트 행사 준비에 단련이 되어있어요. 이벤트를 차려도 될 정도 다들 교사들이 베테랑이에요(웃음)(2008. 11. 11. 김교사 면담).

이처럼 유아의 흥미나 수준보다는 학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고 있었

으며, 학예발표회 계획은 학기 초에 이미 대체적인 시기와 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2학기가 되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10월 말 부터는 이미 발표회 준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요.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할 만한 장소를 섭외하느라 바쁘거든요. 요즘은 대학강당이나 문화회관 같은 곳을 대여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음향이나 조명, 난방시설이 잘 되어있으니까요. …(중략)… 그나마 요즘 업체에서 재롱잔치용 비디오나 CD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의상 카탈로그도 작품에 맞게 세트와 나와 있어서 그런 점은 아주 편리해요(2008. 9. 19. 원정2 면담).

종합해 볼 때, 학예발표회는 보육시설에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연간 행사에 포함시키고 2학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논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두 달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사회의를 걸쳐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들의 각 연령별 특성은 고려하되 학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좀 더 세련된 볼거리를 마련하여 기관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 힘들게 행사를 치러내다

학예발표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의 계획이 세워지면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 실제적으로 교사는 계획된 발표회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교사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시키느라 분주한 모습이였다. 가끔씩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수업시간까지 학예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연습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재롱잔치 기간이 다가오기 전 한달 전후로 해서 보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동작이 나올 정도로 연습이 계속 된다고 해야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구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아이들과의 평소 수업활동 시간도 연습시간이 되어버려요(2008. 11. 14. 하교사 면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사와 유아들은 새롭고 신나는 노래와 율동에 흥미를 느끼며 하나씩 내용을 익히고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나의 작품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연습과 준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는 유아들에게 안쓰러움을 느끼면서도 결국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학예발표회를 준비에 유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과자와 같은 물질적 보상이나 언어적 칭찬으로 끊임없이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새로운 노래와 신나는 율동으로 재미를 느끼지만, 계속적으로 연습이 반복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짜증도 부쩍 많이 늘고, 몸살로 결석도 많이 해서 연습도 충분히 못했어요. 아무래도 보육비를 내는 부모님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 걸 알면서도 보여주는 것에 급급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애들한테 미안해요(2008. 12. 17. 이교사 면담).

【점심식사 시간 30분이 지나자 이교사는 인사말 대본과 카라멜 봉지를 가지고 다시 아이들에게 발표회 연습 대형으로 모여라고 한다】

이교사 : 애들아 얼른 모여보자. 별달거리 한번만 더 해보자! 원장선생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려야겠지! 지금 곧 우리반 하는 거 보러 오신다. 손도 발도 번쩍번쩍 높여서 잘하는 친구는 나중에 이거(카라멜 봉지를 가리키며) 준다!

유아1 : 앓싸! 마이쥬 준단다.

유아2 : 어휴! 그래도 정말 힘들어요. 안해요. 손아파요.

...(중략)...

유아1 : (소고를 바닥에 놓으면서 힘든 목소리로) 아이구야 (뒤로 눕는다)

유아4 : 똑바로 좀 앉아라.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교사 : 누구니? 힘들더라도 꼭 참고 있어야 해요. 소라하고 민지는 서로 앞뒤로 자리 옮기고, 민지는 소라 뒤에서 잘 보고 하도록 하자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종이에 아이들의 배치도를 재수정한다)(2008. 12. 5. 잔치반 참여관찰).

한편, 교사는 학예발표회 공연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맡은 배역이나 출연 작품에 관한 학부모들의 지나친 관심과 오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공연에서 맡게 되는 역할의 비중이나 바쁜 아이들의 연습시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가끔씩 생기는 학부모와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맡은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다른 아이가 맡은 배역과도 비교를 하기도 하며 언짢아하시는 경우엔 정말 힘들어요. ...(중략)... 이런 행사들은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관례지만 부모들의 요구들은 정말 다 달라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2008. 10. 20. 이교사 면담).

실제적인 학예발표회가 진행되는 무대 뒤에서는 행사를 진행하는 교사의 숨가쁜 움직임과 땀이 함께 하였다. 교사들은 매 순서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유아들을 대기시켜 연습시키는 일을 비롯하여 작품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챙겨 입고 머리 손질하기, 작품이 끝난 유아들의 의상 챙기기, 무대 진행하는 교사와 수시 연락 주고받기, 학부모 안내, 유아들 간식 챙겨 먹이기, 안전관리 등을 소화하느라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순서를 무사히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온 유아들은 땀을 흘리고, 기쁜 숨을 쉬면서 또다시 다음 순서의 의상으로 갈아입기 시작한다. 옷을 거의 벗어 던지다시피하고 서로 옷을 입으려고 다

투기까지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옷을 빠른 손놀림으로 벗기면서 다음 순서의 의상으로 갈아입힌다.】

김교사 : (무대를 담당하는 교사와 통화를 끝낸 후 아이들을 보며) 장난치지 말고 다음 순서 때까지 여기서 잠시 앉아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안돼요. 강당에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 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줄 한번 서보자! 자! 오장반합!, 정열의 꽃! 장구! 태권도! (공연 제목별로 자리정열을 시킨다)

미경 : 바쁘다 바빠! 민주야 이것 좀 붙여줘. (연구자를 보며) 이게 안 붙여져요.

민주 : 니가 거꾸로 입었잖아. 조끼를 먼저 입어야지.

철이 : 야! 내 꽃은 어디로 갔는데? 선생님! 꽃이 없어요!

김교사 : (의상이 쌓여있는 곳을 뒤적거리며) 옷을 제자리에 좀 벗어둬야지. 이렇게 엉망으로 던져놓으니까 못 찾잖아! 다들 순서는 잘 외웠지? 빨리 옷 갈아입고 여기서 한번 연습해보자.(유아들을 무대에 세운 후 급히 무대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들에게 율동 시범을 다시 보인다)(2008. 12. 15. 재롱반 참여관찰).

정말 정신없이 애들 챙기고, 옷이랑 소품 챙기고, 벗기고, 입히고, 연습시키고, 줄세우고 휴(한숨) ... 또 한꺼번에 아이들을 무대로 내보내려면 빨리빨리 옷을 갈아 입혀야 하는데, 이때 어린 아이들 경우는 친구가 입을 예쁜 공주 드레스를 입겠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 하기 싫다고 울기도 하고 그럴 땐 정말 난처해요. (두 손으로 목을 감싸며) 이젠 말도 안 나와요. 목도 아프고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2008. 12. 15. 하교사 면담).

학예발표회 무대 뒤에서의 유아들은 무대에서 화려하게 하나의 작품을 막 끝내고 온 뒤 서로 기쁨과 만족감을 표현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의 실수담을 나누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다음 작품을 위해 또 다른 의상을 찾아 갈아입으면서 서로 옷 입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새로운 의상으로 바뀌 입은 자신의 모습들을 보며 즐거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동안 몇 번씩 갈아입어야 하는 의상과 소품,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습과 대사암기,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긴 시간 등으로 지치고 허기진 모습이 역력히 보이기도 하였다.

유아1 : 선생님! 우리 또 해요?
 교사 : 응. 2부에서 아까 했던 거 너무 너희들이 잘해서 한번 더 할거야.
 유아2 : 나는 잠 오는데. 피곤해요. 나도 예쁜반 동생처럼 자면 안되요?
 교사 : ○○아!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열심히 한 거 끝까지 잘해야지? 그치?
 …(중략)…
 유아3 : (교사를 보며) 피곤해요. 추워요.
 교사 : (가운을 주면서) ○○아! 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까 아프면 안된다. 어서 이것 좀 걸치고 조금만 쉬어라(2008. 12. 23. 잔치반 참여관찰).

이처럼 유아들은 계속되는 행사준비와 진행과정에서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교사들 역시 학예발표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나, 결국 ‘보육비를 내는 학부모’가 본다는 생각에 정규 활동 시간을 할애하고 유아들이 끝까지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미도 찾고 후회도 하며 마무리하다

학예발표회는 유아와 교사들에게 그동안 힘든 연습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끝까지 잘 해 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과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배운 내용을 무대에서 보여줌으로써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임과 동시에 학부모에게 한 해 동안의 교육의 결실로 평가되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유아들은 서로 틀리진 않을지 긴장도 하면서 새로운 멋진 의상을 갖춰 입고 큰 무대에서 보는 경험은 각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도 간직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 : 애들아! 오늘 정말 우리 잔치반이 잘하더라.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유아1 : (기쁜 표정으로) 정말요. 우리 할머니도 잘했다고 했는데.
 유아들 : 맞아요. 오장만합하고 장구도 잘했다고 했어요.
 교사 :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수고 했다고 박수쳐볼까요?
 유아들 : 모두 박수를 친다(2008. 12. 15. 재롱반 참여관찰).

부모님들과 인근의 주민들까지 반응은 꽤 좋은 편이에요. 또 아이들이 제법 또 무대 위에서 잘 하잖아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무대에서 잘 해내는 모습만으로도 가슴 벅찬데… 아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게 돼요. 학부모들도 얼마나 자녀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해하시는데요. 아이들도 무언가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을 선보이고, 학부모들도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 교사에 대한 고마움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고 나면 한해를 잘 마무리 짓고 그동안의 수고가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울 한해가 끝나는 느낌이에요(2009. 1. 12. 김교사 면담).

이와 같이 학예발표회는 유아와 교사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기도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학예회인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의 실상을 보면 정말 미안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원을 위한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보다는 부모를 위해서 원을 위해서 인거죠. 정말 과연 우리 아이들 연습시키는 모습을 보고, 또 이런 발표회를 했으면 하는 부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괴롭습니다(2009. 2. 9. 이교사 면담).

아이들의 개성이나 능력, 특성보다는 교사가

정한 활동에 아이들이 맞추도록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개개인의 기질과 특성은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봉어빵 찍어내듯 똑같은 의상에 똑같은 춤을 추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2009. 12. 30. 민교사 면담).

이처럼, 교사와 유아들은 학예발표회에 대해 긍정적인 마무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유아를 위한 것은 아니며 교육적으로 유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예발표회의 실천적 의미

1) 유아 : 재미있다 vs 힘들다

유아들은 학예발표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평소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노래와 옷, 율동과 음악, 다양한 활동 등에 호기심을 보이며,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호흡을 맞춰서 연습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였다.

유아1 : (얼굴에 화장을 하고 무대의상 드레스를 입고 난 후 연구자를 보며) 우리 정말 예쁘지요? 우리 공주같지요? (드레스를 넓게 펼쳐 돌면서) 이렇게 넓게 퍼지거든요. 우리 꼭 어른 아가씨 같지요? 화장도 했어요. 볼래요?
연구자 : 혜진이 예쁘네. 그 옷이 좋은가 보네. 어른처럼 보이는 것이 좋니?

유아2 : (수줍은 듯 웃으면서) 그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 같고 또 어른 같으니까요. 이제 '무조건' 노래 할 차례인데 우리 아빠가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도 부르고 좋잖아요 (2008. 12. 15. 재롱반 유아 면담).

이처럼 유아들은 학예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음껏 부르고 춤을 추는 것에 특히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잡하

고 다양한 동작들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연습으로 아이들은 매우 힘들고 지쳐 보였다.

유아1 : 나는 1번줄인데! ○○도 1번줄이고

유아2 : 근데 뭐! 내 2번줄인데 왜 그러는데?

유아1 : 잘하는 친구만 1번 줄이다. 아까 니 자꾸 의자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춤을 잘 못추니까 그렇지. (옆에 있던 ○○를 보면서) 맞제!

유아2 : (책상에 엮드리면서) 니하고 이제 안 놀거다. 잘난 체만 하고. 선생님한테 다 말할거다. 내보고 못한다고 놀렸다고(2008. 10. 30. 재롱반 참여관찰)

【여아들 8명은 잠자리 날개옷에 타이즈를 신은 후 무대 뒤에서 다음 차례를 대기하고 있다】

유아1 : (두 팔로 가슴을 감싸고 떨면서) 너무 춥다. 그자

유아2 : 여름 옷 입어서 그렇다.(무대를 살펴보고 있는 교사를 향해 큰 소리로) 선생님! 이것만 하면 끝나요?.

유아3 : (교사가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유아2를 보며)무대에 다 들리겠다. 선생님이 참아라고 했잖아 (2008. 12. 22 잔치반 참여관찰).

위 참여관찰 사례에서 보듯이 유아들은 연습 과정 속에서 율동을 잘 따라 하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구분하고 교사의 자리바꿈 지시로 인해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래 간 경쟁과 위축, 좌절을 함께 느끼는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2) 교사 : 해야만 한다 vs 하기 싫다

교사들은 학예발표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며, 학부모들에게 한 해 동안의 기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나 구체적 활동들을 전시하고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는 행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사는 기관의 장인 원장

의 선택과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교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써 결국 교사의 업무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힘든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원장님의 결정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희 교사 입장에서는 원장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들은 이런 행사가 기관을 주변에 알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교사의 중요한 업무가 되는 거죠(2008. 9. 29. 김교사 면담).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는지, 아이들이 뭘 하고 지냈는지 궁금해 하고 직접 보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보여드려서 교육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학부모들도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교육이나 자녀나 교사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구요. 오히려 학부모들이 다른 기관과 비교도 하시면서 더 크고 더 세련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이기도 해요(2008. 10. 24 이교사 면담).

이처럼 교사들은 학예발표회의 실행 여부는 원장의 결정, 학부모의 요구 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결국 교사로서는 해야만 하는 업무 중 하나이며, 원아모집에 대한 경쟁과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해마다 학예발표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내적 갈등은 학예발표회가 진정 교사로서 해야만 하는 일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재롱잔치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하나하나가 우리 교사들에 대한 평가 잣대가 되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이도록 연습을 시키게 되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가 무대 위에

서 잘 하면 잘 할수록 어린이집에서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려니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중략)… 교사들도 돌아가면서 병원을 찾게 되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짜증을 부리고 그러다보니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또 강압적이게 되고 화를 내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교사로서 솔직히 딜레마에 빠져요(2008. 12. 5. 이교사 면담).

선생님들의 일은 엄청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소화할만하고 될 수 있는 세련된 곡 선정에서 울동 만들기, 인사말 만들기 연습시키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자리 바꾸기, 아이들 무대 배치 수시로 바꾸기… 아이들 배역 때문에 생기는 부모님들의 신경전 때문에 눈치도 보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장이라든지 학부모라면 이런 발표회는 정말 반대해요(2008. 10. 24 하교사 면담).

위 사례를 종합해 보면, 교사에게 있어 학예발표회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원아모집이나 학부모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접 행사를 준비하고 유아를 연습시키는 과정에서 진정 아이를 위해 교사로서 해야만 하는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며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학부모 : 하는 거다 vs 안 하면 안 될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예발표회에 대해 보육시설에서 의례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행사이며, 행사 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일 뿐 아니라 그동안 자녀들의 장기와 개성, 끼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예발표회 날짜에 맞춰 직장 일을 조정해 놓고, 자녀에게 수고를 칭찬해 주기 위해 사탕부케와 꽃다발을 비롯하여 자녀들의 재롱을 담아두기 위한 사진기와 캠코더는 준비해야 할 중요한 필수품으로 챙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는 대기실의

선생님께 아이를 보낸 후 객석에 들어서는 순간 부터는 무대와 좀 더 가까이 앉기 위해 다른 학부모님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하였다.

요즘은 재롱잔치도 초, 중, 고등학생 행사처럼 굉장히 크게 하는 것 같아요.(사탕부케를 보이며) 이것도 여기 앞에 장사들이 쭉 전시를 해 뒤서 하나 샀어요(웃음) 그동안 애 뮤지컬 대사 외우게 하느라 저도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2년째 여기를 보내는데 애가 또 이런 행사를 즐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2008. 12. 22. 부모3 면담).

우리 애가 좀 소극적이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했는데, 작년에 정말 잘 했거든요. 비디오도 두고 두고 보고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저희 시대 어른들도 애가 워낙 무대에서 잘 하시니까 애 불맛이 더 난다고 하시면서 여기 교사나 원장님 팬이 될 정도예요. 내년에도 여기에 계속 보낼 거예요(2008. 12. 15. 부모1 면담).

이때 우리 같은 사람은 손자 손녀들 예쁘게 입고 나와 춤추는 거 보는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내가 거의 2년을 여기에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어. 이때는 빨리 와야 제일 앞쪽에 앉아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서둘러서 왔는지. 작년에는 자리가 없어서 고생했거든(2008. 12. 15. 조모1 면담).

특히, 학부모들은 발표회 연습을 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잘 참고 이겨내야 할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곤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직접 다그치기도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1부 순서가 마치자 재롱반 영호엄마가 영호를 안고 대기실에 들어와서 담임교사를 찾는다.】

영호엄마 : 선생님! 영호가 자꾸 집에 가자고 떼를 쓰네요. 너무 피곤한거봐요.

교사 : (놀라는 표정으로) 2부때 또 영어뮤지컬이 있어서 안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영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영호가 역할을 맡고 있어서 빠지면 진행이 안돼서요. 저기서(대기실 한 쪽을 가리키며) 잠시 쉬실 수 있도록 해 주실래요? 영호가 영어발음도 좋고 잘 하잖아요.

엄마 : (영호를 보면서) 거봐라. 선생님이 지금

가지 말라지. 조금만 더 참아라. 뮤지컬 한번만 더 하면 된다. 잘 할 수 있지? 아까 1부에서 너무 잘 하데.

영호 : 추운데. 잠도 오잖아(짜증을 부린다)

엄마 : 잠은 집에 가서 자고 무대에서는 열심히 잘해라.(꾸중하는 목소리로) 저기 니 보다 동생들도 잘 참고 기다리잖아(2008. 12. 15. 재롱반 참여관찰).

이처럼 학부모들은 보육시설에서의 학예발표회는 의례적 행사이면서 가족들이 모두 어울려서 유아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익힌 재롱을 볼 수 있는 기대되는 축제라고 보았다. 특히 무대에서 자녀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활동들을 잘 마무리했을 때 느끼는 감동과 기쁨은 매우 크며, 이러한 감동은 그동안 기관에서 실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일 뿐 아니라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준 교사들의 능력 덕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은 행사운영에 학부모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 곧 다음해 아이들의 재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학부모들 중에는 이러한 학예발표회가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지나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 행사라 하기에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딱 이때쯤이면 어린 애들을 옷 입혀서 일일이 춤 가르치는 교사도 힘들겠지만 어린 애들도 여간 고생이 아니예요. 애가 피곤하니까 감기도 낫지를 앓더라고. 행사가 밤늦게까지 하니까 저녁에 9시면 애를 재워야 하는데 추운데 여기서 옷도 얇게 입고 연습하느라고 고생하니까...(중략)... 우리 둘째 손자는 아직 어려서 음악소리랑 불빛 때문에 놀래가지고 작년에는 무대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도 정신이 복잡하더라고. 어린 애들한테는 좀 힘든 것 같아(2009. 1. 7. 조모2. 면담).

어린이집에서 보낸 가정통신문 내역을 보니 각 반별 작품내용과 수에 따른 의상대여료, 장소 대관, 작품전시 준비비용, 동영상비디오와 CD 제작료 등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7세 반이라 작품이 6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니 의상비가 거의 5만원이나 넘더라고요. 아이들 재롱잔치 치고는 부담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작품도 너무 많고 대여료가 왜 그렇게 비싼지(2009. 1. 7. 부모4 면담).

행사를 진행하는 건 좋은데 추가비용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요. 꼭 의상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만들거나 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을텐데. 이번에는 CD나 사진은 주문을 안 했어요. 물론 애들은 화려하고 예쁜 걸 좋아하긴 하나 행사비를 안 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부담스러워요(2009. 1. 12. 부모2 면담).

이처럼 학예발표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아이를 맡긴 이상 동참은 하고 있었으나 그에 대한 반응은 매우 상반된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없고 유아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학부모의 대체적인 입장이었다.

4) 원장 : 아이들과 부모들이 좋아한다 vs 원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은 학예발표회에 대해 유아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기관에 대한 참여와 아울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무대에 한 번 서 본다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육에서 얻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경험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수준 높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교사들과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매해 새로운 활동을 하니깐 좋아할 수밖에 없죠(2009. 2. 10. 원장1 면담).

공연을 마치고 나면 학부모들이 모두 아이는 무대체질로 바뀐 것 같다고 하세요. 애들이 큰 무대에서 떨지도 않고 잘 해내는 걸 보면 언제 저렇게 컸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정말 이런 큰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아이들도 확 성장해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춤추는거 창피해 하면서 소심하던 아이들도 예쁘게 꾸며서 친구들과 같이 무대에서 아빠 엄마 앞에서 선보이고 나면, 아이들도 부모도 감격스러워하고 뭔가를 해냈다는 기쁨도 느끼고, 기관의 교육에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2008. 12. 30. 원장2 면담).

이처럼 원장은 학예발표회를 통해 유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유아들의 공연을 통해 자녀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학예발표회가 단지 유아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기관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사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즉, 학예발표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기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숨은 전략이 있음을 밝혔다.

해마다 11월에 접어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알리기 위해 아빠 초대의 날이나 작품 전시회 등을 마련하기도 하고, 인근 지역회관이나 문화회관, 대학 강당에서 학예발표회를 열어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하지요. 사실 부모들의 입소문이 큰 역할을 하니까요. …(중략)…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한번 하고 나면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고,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 기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보육시설으로서 입지도 서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구나’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2008. 11. 24. 원장1 면담).

이처럼 원장은 학예발표회가 기관을 잘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적 전략도 있음을 인정하나 이것이 학예발표회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부각되어 부정적인 시각이 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실 학예발표회에 있어서 명암은 있지요. 예를 들어 아이들을 너무 오래 연습을 시킨다거나 추가적인 비용으로 학부모들의 불만 사기도 하고 원의 홍보적 수단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나 모두가 이것만 보고 하진 않거든요. 이런 발표회가 너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중략)... 이런 발표회가 잘 이루어지려면 우선 기관도 이런 경쟁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도 열심히 발표회를 준비하는 자녀에게 “무슨 역할이니?”를 묻기 보다는 함께하는 연습과정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일들이나 그들의 느낌을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행사를 하다보면 공연장에서도 다른 아이들과 자녀를 비교를 하거나 자녀의 차례가 끝나고 나면 그냥 먼저 가버린 몇몇 사람들의 빈 자리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2009. 2. 17. 원장2 면담).

종합해 볼 때, 원장은 학예발표회가 유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이 유아교육과, 기관, 자녀를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으면서도, 학예발표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기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숨은 전략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예발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어떠하며 그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비판적 교육학

(Critical Pedagogy)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그것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맥락화 되어 이루어지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예발표회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루어아하는 가장 중요한 연간 행사로 한두 달 전부터는 교사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행사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유아들의 각 연령별 특성 및 학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좀 더 세련된 볼거리를 마련하여 기관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계획된 학예발표회 작품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 속에서 교사와 유아들은 하나씩 새로운 작품을 익히는 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계속되는 행사준비와 진행과정에서 교사와 유아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예발표회에 대해 교사들은 긍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이를 토대로 내년을 또 다시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진정 아이들의 입장과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살펴볼 때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된다는 속내를 보여주었다.

둘째,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예발표회의 실제 현상 속에서 드러난 실천적 의미는 유아와 교사, 원장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학예발표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양가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들은 학예발표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평소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재미와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동작들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연

습으로 매우 힘든 일로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학예발표회를 학부모들에게 한 해 동안의 기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나 구체적 활동들을 전시하고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는 중요한 행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사의 입장에서는 기관의 장인 원장의 선택과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으로써 결국 교사의 업무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힘든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자녀와 손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부모와 조부모들은 학예발표회에 대해 보육시설에서 의례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행사이며, 이때는 그동안 자녀들의 장기와 개성, 끼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표회 연습을 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잘 참고 이겨내야 할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반면, 이러한 학예발표회가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지나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 행사라 하기에는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은 학예발표회에 대해 유아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기관에 대한 참여와 아울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예발표회가 유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이 유아교육과, 기관, 자녀를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으면서도, 학예발표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기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숨은 전략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학예발표회는 유아와 학부모의 요구보다는 원아모집 및 기관 홍보 등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되어 실시되고 있었으며, 유아와 교사 및 학부모는 이에 대한 불만은 숨긴 채 긍정적인 면을 수용하면서 수동적으로 임하는 가운데, 학예발표회는 행사의 본래의 목적인 더불어 즐기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보여주고 알리는 시간(하정연, 2009)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우선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보육현장에서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교육비용을 지불하는 학부모에게 원을 홍보하고 궁극적으로 원을 선택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진행되는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행사는 유아들의 진정한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되 보다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교육의 모습마저 보이게 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에도 없는 행사가 왜 유아교육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그 속에 어떤 이데올로기와 체계모니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학예발표회는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볼 때 교육학 이론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식 사고에서 시작된 발상이기 때문이다. 허창수(2004)는 한국의 학교교육은 지배계급 중심의 이데올로기 위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보았는데, 학예발표회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자본주의의 산업화(capitalistic industrialization)라는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그 재원확보에 있어 국공립에 의존하는 비율보다 철저히 개인에 의해 유지되어온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시장경제 체제에 놓인 보육시설이 살아남기 위해 택한 궁여지책의 한 단면이

학예발표회일 수 있는 것이다. 보육시설로서는 현실적으로 시장경쟁에 의해 존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공립 시설을 늘리거나 기존 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가면서 시장경제 논리에 빠진 보육 현장이 소신껏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예발표회는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아이를 아이 자체로 보지 않고 유능한 국가 인력으로 조기에 키우고자 하는 학력주의(credentialism)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다. 임영수(1996)는 한국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본성적 이데올로기는 학력주의라고 진단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하에서 시장적·자본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다수’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들 ‘무능한’ 대중들의 삶은 사회적인 보호장치 없이 적자생존의 법칙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성훈, 2008).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적인 엘리트로 자라기를 원하고, 이로 인해 보육시설은 점점 보다 빨리, 보다 많이, 보다 잘 하는 아이를 양성해주기를 기대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다수의 보통 아이들의 유아기에 행복할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예발표회에 대한 유아와 교사, 학부모의 불만이 드러나지 않은 채 수용되고 있는 현실은 유아기부터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우수한 인재로 키우고 싶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학력주의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에서 바른 아동관을 정립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예비부모

나 부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기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학예발표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행사는 교육의 한 연장으로써 교육의 주체인 유아와 교사, 학부모 모두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아이가 신명나고 부모가 편안하고 교사가 즐거운 모두가 더불어 즐기는 잔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하정연, 2009). 즉,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이 평소에 하던 것들이 모여서 소박하고 부담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유아들 역시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각 유아교육기관에서도 획일적인 행사 운영이 아닌 각 기관의 철학과 소신을 담은 행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지워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서 학예발표회가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 그 실체를 계획, 실행, 평가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실제 현상을 점검하고, 보육시설에서의 학예발표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아, 부모, 원장,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학예발표회의 실천적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두 기관에 대한 연구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예발표회에 대한 실태나 양상을 전국적인 규모로 밝혀보는 양적 연구를 시도해 본다거나 학예발표회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보육시설의 행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발굴하고 이를 사례연구 하여 바람직한 행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현정(2005). 초등학교의 하루 : 초등학교 아동의 일과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1, 2, 3**.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 지도서 1-총론**. 서울 : (주)두산.
- 교육인적자원부(2000).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 11-특별한 날들**.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김마리(2008). 유치원 행사에 대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성훈(2008). **교육과정 강의**. 서울 : 동문사.
- 김수향 · 이용주 · 이은진(2008). **보육시설 운영관리**. 서울 : 동문사.
- 김영옥 · 진명희 · 김혜경(1995). **유치원 행사활동 계획**. 서울 : 동문사.
- 김영천(1998). 교육학에서의 질적연구 : 정점에 오르기까지. 이용숙 · 김영천 편. **교육에서의 질적연구 : 방법과 적용**.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영천 · 조계식(2006). 질적연구와 교육과정 연구. 김영천 편. **After Tyler : 교육과정 이론화 1970년-2000년**. 서울 : 도서출판 문음사.
- 김은성(2007). 학습자들은 왜 문법학습을 꺼리는가?- 문법학습 부진 요인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0, 35-72.
- 김은영(2006). 유치원 교사 직무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종만(1992). 어른들이 벌이는 유치한 재롱잔치. **중등우리교육**, 24, 101-102.
- 김혜원(2005).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유아와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재영(1998). 유치원 행사에서의 부모의 지도의식-운동회를 중심으로 한 한 · 일 비교연구. **창조교육학회지**, 2(1), 53-72.
- 서영희(2008). 표준보육과정과 생태보육과정의 운영 실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여성가족부(2007).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서울 : 여성가족부.
- 유혜령(2005). 아동교육연구의 현상학적 접근 : 역사와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8(1), 57-88.
- 이근호(2006). 현상학과 교육과정 연구. 김영천 편. **After Tyler : 교육과정 이론화 1970년-2000년**. 서울 : 도서출판 문음사.
- 이대근 · 송정원(2005). **최신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경기 : 양서원.
- 이정화(2004). 고3 어머니의 모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교육연구**, 17(2), 95-120.
- 임영수(1996). 한국 학력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교육학연구**, 34(5), 465-486.
- 조염미(2004). 유치원 행사의 계획과 운영. **자격연수**, 6, 91-99.
- 조용환(1999). **질적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 교보문고.
- 조주연(2004).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현장 문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하정연(2009). 보여주고 알리는 행사, 더불어 자라고 즐기는 잔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9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55-178.
- 한겨레신문(2008. 2. 14). 대형강당 ‘재롱잔치’, 어린이 집 너무해. [http : //www.hani.co.kr](http://www.hani.co.kr)
- 한임순(1994). **새유아교육개론**. 서울 : 동문사.
- 홍성임(1994). 유치원행사현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허창수(2004). 한국 교육에서의 젠더 평등과 공평 : 여성 연구에 대한 개념 확장의 필요성. **교육사회학연구**, 14(2), 219-246.
- Carlson, D. (1992). Educational as a political issue : What’s missing in the public conversation about education? In J. Kincheloe & S. Steinberg (Eds.), *thirteen questions* (pp.263-274). New York : Peter Lang.
- Guba, E., & Lincoln, Y.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 Press.
- Pinar, W. F., Reynolds, W. M., Slattery, P., & Taubman,

- P. M. (1995). *Understanding curriculum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New York : Peter Lang.
- Spradley, J. P. (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Participant observation](이희봉 역).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1980년 원저 발간).
- Walker, D. (1992). Methodological issues in curriculum research. In P. Jackson (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pp.98-118). New Yorks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009년 12월 31일 투고, 2010년 3월 16일 수정
2010년 3월 26일 채택